

A Study on Fabrics and Pattern of the Excavated Costume During 16 · 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Hyun-Joo Lim* · Hyo-Sook Cho

Kyungwon University* · Kyungwo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extiles used for ancient costumes of the 16 · 17th century in Joseon Period, focusing on fabric types and patterns of the costumes from tomb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brics and social backgrounds, especially change in using fabrics through the war from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Since the war must have had an effect on the life of people's.

The result of the study is that silk occupies 69% of all textiles, and cotton, linen follow. The weaving method of silk was primarily plain and satin weaves. However the use of twill, gauze, and double weave, that had led weaving methods of silk during the Koryo Period, were considerably decreased in Joseon Period.

Danyeong(團領) and *Cheollik*(帖裏) had been made of various fabrics like cotton, linen, silk and blended fabrics before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fter the war, they were simplified in gauze weaved from silk or satin weaved silk. It is assumed that *Banglyeong*(方領) was excavated intensively prior to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not dressed after the war. *Banglyeong* is the highest ratio of patterned silk in all sorts of *Po*(coat), is high ratio of cloud pattern. As a result, it is supposed that the purpose of dressing *Banglyeong* is not only practical use but also luxury and ornament. In *Jangeui*(長衣), since it was mostly for women, more feminine patterned silk were used than any other *Po*. Patterned fabrics were widely used for *Danyeong*, *Banglyeong*, and *Jangeui* than other *Po*. Simple fabrics like cotton, linen and plain weaved silk had been used for *Aekjureum*(腋主音) and *Jiklyeong*(直領) before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fter the war,

Jiklyeong was used as underwears of *Danyeong*, so it was made of patterned silk with high quality. *Dopo*(道袍) and *Changeuiryu*(褈衣類) were mainly excavated from tombs after the war, plain weaved silk with high quality are more used than gorgeous patterned silk.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studied, types excavated fabric in the 16 · 17th century Joseon Period can be said various. Of this, silk was the most remarkable one till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when the ratio of patterned silk dramatically decreased. Contrarily, the ratio of cotton and plain fabric increased rapidly in the war. It is supposed that the result is largely due to unusual condition of the war time. After the war, it is estimated that use of patterned fabric as well as silk was decreased.

Patterns of textile fabrics in 16 · 17th century were classified into cloud, flower, lucky omen pattern and geometric pattern. In result of surveying the existence of a feature of a textile fabric *Banglyeong* and *Jeonbok*(戰服) were the highest ratio of all. But *Aekjureum*(腋主音), *Dopo* and *Jueui*(周衣) were not used by patterned textile fabrics. In result of surveying a trend of increment and decrement, it is known that the ratio of patterned textile fabrics decreased dramatically in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Manchu war of 1636*.

Tendency of textile use by social position is more notable. It is appeared that a lot of silk fabrics were used in High hierarchy. Of course, people in lower class and had no government position usually wore clothes of linen or cotton. The excavated remains and ratio of silk were the highest in *Kyonggi Province* including *Seoul*.

조선시대 16·17세기 출토복식의 직물유형 및 문양에 관한 연구

임현주* · 조효숙

경원대학교* · 경원대학교

본 논문은 조선시대 중 16·17세기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의 유형과 문양에 관한 연구이다. 출토복식의 대부분이 16·17세기에 집중되어 있어 이 시기의 사회상 특별히, 임진왜란을 전후한 직물사용 경향 및 특성을 유추하여 당시의복별 직물사용 변화추이를 조사하였다.

16·17세기 출토복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물의 유형은 면·마·견·교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 중 견직물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견직물, 특히 수자직물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반대로 면직물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체 직물의 문양을 조사한 결과 문양이 있는 직물은 전체의 16%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방령과 전복, 장의와 단령의 유문직물 사용비율이 높았고 액주름, 도포, 주의에서는 문양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무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문직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병자호란을 전후하여서는 임란 시점보다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무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별 직물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단령과 철릭에 사용된 직물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면·마·견·중조직이 다양하게 쓰였으나, 임란 이후에는 면·마·평견·수자직물로 단순화되었다. 철릭은 포류 중에서 출토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보고된 철릭 가운데 80% 이상이 16세기에 해당한다. 철릭은 길질 보다 고름바대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방령은 모두 임진왜란 이전에 집중 출토되어 임란 이후에는 방령이 입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령은 포류 중에서 유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운문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방령에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했던 점은 착용목적

에 있어 장식성을 강조한 의복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대표적인 표의로 사용되었던 장옷은 유문수자직이 높게 조사되었다. 장옷의 깃과 겨드랑이 무에는 화려한 문직물을 사용하는 디자인의 특성을 보인다. 장옷에 사용된 문양의 비율은 35%이상으로 운문은 한점도 없었으며 전형적인 연화(모란)만초문과 길상문이 주류를 이루었다. 저고리와 치마에 사용된 직물도 견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문양은 다양한 종류의 화문이 주를 이루었다. 바지에는 속곳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문양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소재도 목면과 명주가 거의 같은 비율로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여홍 민씨(1586-1656)의 단속곳에서는 화문이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에 의한 직물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크게 신분과 지역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직물사용의 차이가 있었는데 당상관의 복식은 견직물이 전체의 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란이전 당상관은 문주·문사·문단 등 고급 문직물과 함께 직물사용의 다양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임란이후에 면, 마직물이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당하관은 평견·면·마에 편중되어 나타났다. 평견직물은 전체의 63%로 당상관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면, 마, 수자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상관과 당하관의 문직물 사용은 당상관이 30%이상, 당하관은 10%정도로 나타나 신분별 직물사용의 차이를 나타냈다. 관직이 없는 자는 면과 마를 주로 사용하였다. 출토복식의 지역별조사결과, 수량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토복식에 사용된 직물은 경기도에서 견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직물은 출토 수량에 비해 경기도가 적었고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